

# 한때 인질구출 작전설 ‘초긴장’

## 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 인질사태 조속 해결 협조 요청

### 아프간軍 현지 이동후 군사작전 예고 전단 살포

### 일부 외신 ‘작전개시’ 오보... 통상작전으로 밝혀져

1일 밤 아프가니스탄군이 인질 구출작전을 개시했다는 외신 보도로 한때 초긴장 상태가 유지됐으나 결국 통상적인 군사작전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최후의 카드인 군사작전 가능성은 여전히 불시초 남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무엇보다 탈레반 무장세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온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인질 추가 살해 행위를 강도 높

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 인질을 추가 살해한 것과 관련해 “사악한(vicious) 탈레반”이라고 비난하면서 “테러리스트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서 인질사태에 중대 변화가 예상된다. 만약 오는 5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공개적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 정부의 인질 협상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원칙표명은 앞서 “추가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아프가니스탄군이 군사작전을 예고하는 전단을 현지 주민들에게 뿌리는가 하면 아프간 정부가 200여명의 특수부대원을 사건 현장에

파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군사작전 개시설이 퍼지기도 했다. 일본 NHK는 이날 아프가니스탄 당국자가 지난달 31일 특수부대원 200명 가량이 수도 카불에서 사건 현장인 동남부 가즈니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며 아프간 정부가 특수부대에 의한 인질 구출작전 준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이날 미군과 아프가니스탄군이 한국인을 납치한 탈레반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의 검거를 위해 휴대전화의 전파를 탐지하는 위치 검색장치를 이용하는 등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탈레반 지휘계통에 있는 대변인을 검거하면 주요 지휘관을 붙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가 “구출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작전을 개시하면 인질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말해 인질 가족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탈레반 세력의 위협은 결국 군사적 구출작전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심지어 부시 행정부

가 탈레반의 향후 극단적 행동 가능성에 대비, ‘레드 라인’(red line·금지선)을 그어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군사작전에 줄곧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질을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군사작전에 회의적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 미국이 그동안 군사작전을 자제해 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인질 2명을 살해한 탈레반이 추가 살해에 나서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속수무책 당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레드 라인’은 여성 인질을 살해하는 것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탈레반이 이슬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 인질을 살해에 나선다면 그것은 탈레반이 협상엔 전혀 마음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인 여성 인질의 살해가 협상을 통한 해결의 한계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회 방미단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미국측의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2일부터 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단은 한나라당 김영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민주노동당 천영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진 강충환, 열린우리당 선병렬, 무소속 채수찬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방미단은 낸시 펠로우 미하일 의장과 상하 양원의 외교, 국방위원장, 한미친선외교협회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 행정부의 니콜라스 번즈 국무부 차관, 스티븐 해들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국인 인질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방미 후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 곳도 방문하기로 했다. 앞서 4당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 강봉규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무고한 인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원칙만을 되풀이하거나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당장의 인명살상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와 유엔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와 역할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아프가니스탄 무장남치단체는 더 이상의 만행을 중지하고 억류중인 한국 젊은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인이 다시 희생된다면 아프가니스탄 무장남치단체에 응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반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인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반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인질구출, 군사작전 고려 안해”

### 국정원장 “21명 3개지역 9개마을에 분산 억류”

김만복 국정원장은 1일 아프가니스탄에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전했다. 복수의 정보위원들도 “전날 정부 성명에서 언급된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의 의미가 한국군 파병을 통한 군사작전이라는 질문에 국정원장

이 같았어 답변했다”고 말하고 “미국이나 아프간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애초 파랍 한국인의 수는 남성 7명, 여성 16명 등 23명”이라며 “피살된 남성 2명을 제외한 21명이 현재 가즈니주 카라바그, 안다르, 데약 등 3개 지역 9개 마을에 분산 억류돼 있으며, 납치단체는 아프간 정부군의 추적을 피해 억류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을 납치한 탈레반 세력은 가즈니주 카라바그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압둘라 그룹’이라며 “(이 그룹은) 150여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며, 지역 주민과 파키스탄 등에서 유입된 세력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존 탈레반과 다른 강경파”라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전 세계 수니파 무슬림들의 최고 교육기관인 알-아즈하르의 수장이자 '그랜드 셰이크(수니파 최고 지도자에 붙는 호칭)'인 모하메드 사이드 탄티위(맨 오른쪽)는 지난 달 31일 정달호 주 이집트 한국 대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탈레반에 한국인 인질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탈레반과 직접 통화...국제사회에 호소

### 정부 ‘추가 희생’ 막기 입체적 대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발생 14일째를 맞은 1일 세 번째 희생자를 막기 위한 입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강성주 대사-탈레반 통화=자칭 탈레반 대변인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지난달 31일 강성주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가 처음으로 탈레반 측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외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무장단체 일원임을 자처하는 자가 수차례 대사관 측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들의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직접 접촉으로 보기 보다는 ‘교신’정도도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통화를 통해 전해지는 탈레반 측 입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우리도 우리 입장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채널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탈레반 측과 직접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추가 인질 살해를 막기 위해 탈레반 측과 우리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은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탈레반 측과의 전화접촉에 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사회에 지지 요청=정부는 이번 사안이 국제적 이슈가 됐다는 판단 아래 국제사회의 여론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초보상 상태인 서울을 떠나 2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것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아세안 10개국과 미·중·러·일·유럽연합 등 26개국이 나서는 ARF 외교장관 회의와 미국 등과의 양자접촉을 통해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군사작전 카드에 대한 관측이 나오곤 있으나 아직은 예측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탈레반의 인질살해 행위를 비난하고 억류 중인 나머지 인질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57개 이슬람 회의기구(OIC)가 “무고한 시민을 납치하고 인질로 잡은 것은 인도주의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이슬람의 교의와 종교의 가치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하며 데 이어 아랍연맹(AL)과 전 세계 수니파 무슬림의 최고 종교·교육기관인 알-아즈하르는 지난달 31일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 살해를 비난했다. 유엔도 같은 날 성명에서 “반 총장이 탈레반에 억류된 한국 인질 가운데 2명이 살해된 데 대해 애도했다”면서 “나머지 21명의 한국인 인질과 아직 억류돼 있는 독일인 1명, 그리고 아프간인 4명의 안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잇몸에 직접 작용하는 치약타입의  
**편리한 잇몸약 - 이세락스**® 페이스트

양치와 잇몸치료를 동시에!

**약국에 있습니다!**

-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에 직접 작용하여 건강하고 탄력있는 잇몸을 유지시켜 줍니다.
- 3가지 천연생약성분이 자극없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항균작용과 잇몸건강에 좋은 카모밀, 라타니아, 풀약의 세 가지 생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자극없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 하루 두 번 양치질로 잇몸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세락스페이스트는 치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두 번 양치질로 생활속에서 잇몸치료가 가능합니다.

●효능·효과 : 치은염·치조농주에 의한 여러 증상(잇몸의 발적·부기·출혈·고름 등)의 완화  
●이세락스 홈페이지 : [www.isetax.co.kr](http://www.isetax.co.kr)  
●문의전화 : 080-023-1897

편리한 잇몸질환 치료제  
**이세락스**® 페이스트

본약은 인질구출작전과 관련 '인질사태' 관련 보도에 보도되고, '제17823호' 당의 보도입니다. | 광고심사번호 016-1300